

						II-D-1
제목	국문	병리학자에 따른 대장 용종의 조직학적 진단에 대한 일치도에 관한 조사				
	영문	Inter-observer agreement on histological diagnosis of colorectal polyps				
저자 및 소속	국문	윤하정, 신애선, 유근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				
	영문	Hachung Yoon, Aesun Shin, Keun-Young Yoo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,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				
분야	역학 [암]	발표자	윤하정 [일반회원]	발표형식	구연	
진행상황	연구완료					
<p>1. 목적</p> <p>대장 용종에는 많은 조직형이 있지만, 특히 선종성용종(선종)은 adenoma-carcinoma sequence 를 통하여 대장암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용종제거술 이후의 환자 관리는 제거된 용종의 조직학적인 소견에 따라 다르다. 본 연구의 목표는 대장 선종의 재발을 억제하는 아스피린의 효과를 탐구하는 다기관 개입 연구(the APACC study)에 참가하는 병리학자들의 진단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것이다.</p> <p>2. 방법</p> <p>각 센터 (participating center) 병리학자들의 진단을 중앙(coordination center)의 병리학자들에 의해 합의된 “기준 진단(reference diagnosis)” 과 비교하였다. APACC 연구에 참가하는 서른 여섯개의 센터에서 모아진 326 개의 용종에 대하여 두 진단간에 일치되는 비율과 concordance coefficient (kappa)를 계산하였다.</p> <p>3. 결과</p> <p>“기준 진단” 에 의해 확정된 선종은 255 개 이었는데, 각 센터의 병리학자들은 그 중에서 246 개(96.5%)를 선종이라고 진단하였다. 조직형뿐만 아니라 상피의 이형성 정도까지 두 진단이 일치하는 경우는 오직 92 개의 선종이 해당되었다 (총 326 개 용종의 28.2%). Kappa 계수는 선종성 용종을 밝혀내는 일치도가 0.67 이었으며, 모든 용종의 조직형에 대해서는 0.46, 이형성 정도에 관하여는 0.26 이었다. 이형성의 정도를 high grade (severe dysplasia &amp; carcinoma in situ)와 low grade (mild &amp; moderate dysplasia)로만 나눌 때 진단의 일치도는 0.34 로 증가하였다.</p> <p>4. 고찰</p> <p>선종성 본질에 대한 조직학적 진단의 일치도는 매우 높았다. 그러나, 전체적인 조직형이나 이형성에 대한 진단 해석에는 다소간의 불일치가 관찰되어 용종제거술 후 환자 관리의 근거로 이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사료된다.</p>						